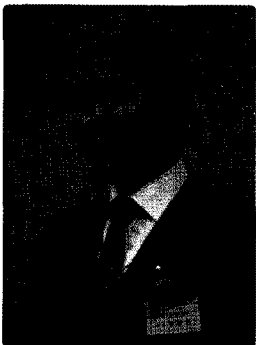




# 식량의 안정적 공급 침병역할 기대



▲ 엄병만 한국작물보호협회  
회장의 인사말 모습

올해로 창립 38주년을 맞은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엄병만)가 지난 1월 5일 「2011신년인사회」를 갖고 희망찬 출발을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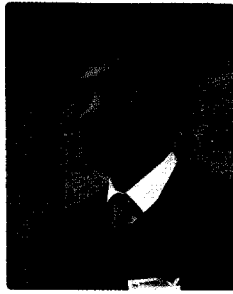
업계 및 대학교수, 언론사, 소비자, 관련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초동 외교센터에서 열린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양주필 안전위생과장, 국립농업과학원 홍무기 농산물안전성부장(한국농약과학회 회장), 농촌진흥청 이광하

농자재관리과장,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조은기 총괄본부장, 서울대 이문한 교수, 충남대 이규승 교수, 작물보호제판매협회 정원호 회장, 소비자시민모임 강광파 이사, 경농 이준영 부사장, 동부한농 박연우 부사장, 동부아그로텍 최영찬 대표이사, 바이엘 크롭사이언스 요그레바인 사장, 성보화학 윤재동 부회장, 신젠타코리아 김용환 사장, 영일케미컬 강성국 사장, 한국삼공 한태원 사장, 아리스타라이프 사이언스코리아 야마가미시게하루 사장, 인바이옉믹스 이명재 사장 등 업계 관계자 약 20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루었다.

엄병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식량안보는 아



▲ 농림수산식품부 양주필 안전위생과장



▲ 국립농업과학원 홍무기 농산물안전성부장(한국농약과학회 회장)



▲ 충남대학교 이규승 교수



▲ 작물보호제판매협회 정원호 회장



▲ 한국농어민신문사 정상수 사장

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듯이 농약업계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책임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식량안보의 첨병으로서 농약의 역할과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식품안전과 소비자 신뢰확보로 소비자가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 해소에 한층 더 노력 할 것"이라면서 "농약업계는 안전성 확보는 물론 효율성이 높은 새로운 농약 개발 및 보급으로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전 그리고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어 농림수산식품부 양주필 안전위생과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는 농약안전관리와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농자재를 공급하는 농약산업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는 정부의 힘만으로 잡을 수 없다"라며 "정부, 업계, 농업인 그리고 소비자가 함께 협력하고 지혜를 모을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농약과학회 홍무기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농약과학회지가 국제 CSI급 학술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농약업계의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농약과학분야의 학문적인 발전을 위해 업계의 소중한 연구결과를 학회지에 많이 발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올해에도 어렵지만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농약산업발전을 위해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었다.



1



2



3



4



5

- 1 제조회원사 사장들이 농업발전과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뜻의 시루떡을 지르는 모습
- 2 신년덕담을 나누는 성보화학 윤재동 부회장, 영일케미컬 강성국 사장, 영병만 회장, 한국삼공 한태원 사장(왼쪽부터)
- 3 소비자시민모임 강광파 이사와 신년인사를 나누는 신젠타코리아 김용환 사장
- 4 공신행사후 참석자들이 신년 덕담을 나누는 모습

5 인사회에 참석한 국립농업과학원 임건재 유해화학과장, 홍무기 농산물안전성부장, 작물보호협회 최운홍 고문, 바이엘크롭사이언스 유병두 부사장, 박재음 농자재평가과장(왼쪽부터)